

##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



계열화사업이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닭고기생산 물량의 85%이상이 계열화사업으로 정착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15개월간 수급과잉, 사료값 인상, AI파동 등의 악재들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계열사의 경영상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본고에서는 닭고기 계열회사 (주)하림의 이문용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사업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 이문용 사장

1976년 (주)빙그레 R&D 입사  
1994년 (주)빙그레 물류본부장  
2001년 (주)하림 총괄부사장, (주)하림 사장  
2006년 (주)하림 대표이사장

이문용 사장은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한화그룹 빙그레 R&D로 입사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화그룹에서 기획을 담당하며 30대를 보낸 이후 그룹의 경영관리, 마케팅, 공장장 등 전 분야를 두루 거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그룹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며 경영자로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이문용 사장은 총괄부사장으로 하림과 인연을 맺으면서 하림공동체의 수장으로서 7년째 임하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옛날 하림의 모습과는 또 다른 보다 발전된 수입구조와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시키면서 상당부분 변화된 모습들을 하림직원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자부한다.

## 하림의 미래, 글로벌 리더 기업

하림은 한·미 FTA, 한·EU FTA 협정 발효 이후 외국산 닭고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생산성과 품질에서 글로벌 리더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문용 사장은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농가 발전방안으로 3년전 농가 협의회를 발족시키면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육농가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

사육수수료 차원을 넘어 평당 생산성 향상과 사육기술 향상, 계사증축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 가고 있다. 인증농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목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사육횟수 증대, 계사증축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말 현황을 보면 하림 사육농가의 25%가 연수익이 1억원을 넘어섰으며 인증농가들도 1,700만원정도의 수익이 중대되는 등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문용 사장은 단백질 산업에서 닭고기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농가들에게 제시하고 평균 사육규모를 8만수까지 끌어올려 현 수익보다 50%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계육산업의 미래에 대해 농가들과 협의를 통해 회사가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금을 알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50동 정도를 새로 신축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도 이와 같은 대목이다.

## 가격결정구조 변화 필요

한편 최근 불황의 원인에 있어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을 말하기 이전에 육계산업의 가격결정구조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계열화의 완성단계에 있어 1) 유통구조의 미완성과 2)계열화 용어 정리의 미확립을 지적한다.

현 계육산업은 약간의 수급 불균형이 생겨도 가

격이 폭등·폭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85%를 차지하는 계열주체의 물량보다 사계물량 15%중에서도 넘쳐나는 물량에 의해서 전체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생산·도계·가공·유통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들은 각 부분의 비용과 적정마진이 합해져 최종제품가격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계열화 이전의 '도계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량의 산지 유통량으로 인해 생계시세가 결정되고 계열사의 닭고기까지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계열사 입장에서는 사료비·인건비 인상과 같은 생산비와 제반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발생된 비용에 대해 제품에 반영할 수 없는 현 가격결정 구조로 인하여 불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육계산업에 있어 계열화가 완성되어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가격결정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 철저한 차단방역 중요성 인식

이문용 사장은 AI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언론들이 감성보도에 치우쳐 발생하지 않았던 2005년 당시에도 AI 과잉보도로 인해 우리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음을 언급하며 꼼꼼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말한다.

방역체계와 의료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던 외국의 피해사례와 오래전 과거시대의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AI 발생과 결부 짓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발생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백신정책이 아닌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여 변종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사육방식과 보건의료체계, 유통구조도 외국의 발생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앞서 있기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 가 있기 때문이다. (정리 | 기영훈 기자)